

감성(Sensibility)의 개념 분석*

박 현 주¹⁾ · 최 진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념이란 이론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로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 그 자체라기보다 현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언어이며 기호이다. 개념 사용의 중요한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으므로 관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유사한 개념과 구분지으며 나아가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의사소통을 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한 의미전달을 하는데 개념분석 작업이 기여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획일화된 목표와 객관성 중심의 과거사회와는 달리 창의와 개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21세기를 문화적 감성 주도권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한다.

감성은 이성과 함께 인간의 인식능력을 의미하며 이성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만 사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쉽과 의사소통능력 같은 감성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감성(Sensibility)이란 이론적 인식에서는 이성적 사고를 위한 감각적 소재를 제공하고, 실천적, 도덕적 생활에서는 이성의 지배와 통솔을 받을 감정적 소지를 마련하며, 미적(美的) 인식에서는 자신의 순수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인간적 생의 상징적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감성을 삶의 포괄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역으로 다루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또한 감성(Sensibility)은 사물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 그것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질서

를 지각하고 그러한 질서를 새롭게 미적 형태로 표현하는 능력인 유사 이성(Baumgarten, 1983)이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능력,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이입능력,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러한 특성들은 간호의 중심이 되는 인간관계의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간호의 본질인 돌봄은 인간의 선천적 자질이며 공감, 감정 이입, 고통에 대한 연민, 타인에 대한 배려와 민감성 등의 정서적 능력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구현하는 근원적 존재방식으로서 감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감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Kong, 2002),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은 간호사로 하여금 대상자가 만족, 안위, 통증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안녕상태가 되도록 도와주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한다(Watson, 1979). 또한 간호에 있어서 환자를 응시하는 것은 임상적 사실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보는 것이며, 거기에서 간호의 정서적 감수성(Sensibility)은 질병의 경험을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도덕적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Norvedt, 1998).

이와 같이 감정적, 미학적, 도덕적 가치에 대해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감성은 대인관계 과정으로서의 돌봄에 기본이 되는 간호사의 풍부한 내적 자질의 자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교육 및 실무 상황에서는 간호사가 타인의 감정에 개입하거나 민감해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직이라는 틀속에 자신을 숨기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외면해버리는 바람직하지

주요어 : 감성, 정서.

1)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응급실(교신저자 E-mail: phj7281@hanmail.net)

2) 선린대학 간호과 강의전담 교수

투고일: 2006년 1월 16일 심사완료일: 2006년 3월 28일

않은 감정처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자와의 진정한 상호 교감에 장애가 되고 있다. 간호는 이제 과학의 특성만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예술 및 인본주의적 특성까지 수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각이 필요하며 간호사의 내적자질이 될 수 있는 감성 영역에 대한 탐구는 간호과학과 예술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감성과 관련된 영역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심리학이나 교육학, 문학 등 인문학 문헌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감성은 학습의 한 형태로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 자기의식 및 타인 관점 수용의 측면에서 감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었고(Bae, 2004; Lee, 2003) 최근에는 감성공학, 경영학, 음악, 미술, 주거 및 환경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감성 소재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간호학 문헌에서도 감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Watson은 민 감성을 자아와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성장을 격려하는 돌봄의 기본요인으로 제시하였고, Van Manen(1990)은 감성을 의학의 진단적 통찰력과 구분되며 대상자에게 편안함과 도움을 주는 간호실무의 핵심으로 보았다. Norvedt는 감성을 상처 받을 가능성으로서의 인간경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간호윤리의 기초로 보았으며 Kong은 간호대상자에게 자율성과 삶의 생동감을 증진시켜주는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를 근거지울 수 있는 철학적 기초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간호에서의 감성은 의료와 구분되는 인간관계 중심적이며 윤리 지향적인 인본주의적 돌봄의 철학에 보편적인 요소로서 사용되며 간호실무에서는 간호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품성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감성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간호학적 논의가 미비하다. 이상과 같이 제반 학문영역에서 감성이란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감성(Sensibility)의 의미는 시대와 학문분야에 따라 지향하는 측면에 차이가 있었고 국내문헌(Lee, 2002; Lee, 2004; Park, 1997)에서의 감성은 정서(Emotion)라는 유사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중요한 인식 능력인 감성을 간호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개념으로 수용하고 간호사의 내적자질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에 대한 명확한 의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Walker & Avant(1988)의 개념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감성(Sensibility) 개념의 사용범위를 확인한다.
- 감성(Sensibility) 개념의 속성을 규명한다.
- 감성(Sensibility) 개념의 모델사례, 반대사례, 경계사례, 관련사례를 구성한다.
- 감성(Sensibility) 개념의 선행요인(Antecedent) 및 결과(Consequence)를 확인하고 경험적 준거를 결정한다.

sequence)를 확인하고 경험적 준거를 결정한다.

본 론

개념의 사용례

• 감성(Sensibility)

감성(Sensibility)은 철학과 미학에서는 인간의 정서작용 및 인지능력과 관련되어 기술되었고 문학과 예술에서는 성격적 특성과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간호학에서도 인본주의적 간호를 위한 간호사의 내적 자질로서 감성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감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교육학 영역에서 감성교육의 효과 측정과 경영학 분야에서의 자기성장 및 긍정적인 대인관계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감성 개념의 사용 범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구개발 및 실증적 연구와 관련된 학위논문과 감성 개념에 대해 논의한 학술지 논문, 그리고 사전 및 서적을 통하여 감성의 속성을 파악하였다.

감성(Sensibility)이란 원래 라틴어의 'sensibilis'에서 온 용어이며 'sens'와 'ability'가 합성된 것으로서 과장되지 않고 진실이 담긴 섬세한 감정 내지는 도덕성과 관련된 단어이다. 감성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1988)에서는 감성을 첫째, 신체적,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힘, 느끼는 능력, 둘째, 감정적으로나 지적으로 기쁘게든 기쁘지 않게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셋째, 감정의 수용이나 이해, 넷째, 지적, 도덕적, 혹은 미학적 가치에 대해 감지하여 반응하는 능력, 다섯째, 섬세함, 민감한 지각 내지는 반응, 여섯째, 기분이 좋지 않거나 불쾌한 등의 경향이 있기도 함, 일곱째,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것과 연관된 단어로 분별있고 따뜻한 마음과 사려깊은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 여덟째, 감각적인, 민감한, 인상적인, 열정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New Ace 영한사전(1991)에는 감성을 첫째, 감각력, 예민한 의식, 이해력, 감성, 둘째, 민감성, 무엇을 느끼기 쉬움, 셋째, 상처받기 쉬운 섬세한 감정, 신경과민, 넷째, 지적, 미적, 정서적 감수성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철학사전(1996)에서 감성은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능력으로서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수용하고 적절한 반응을 통해 그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두산 세계백과사전(1999)에서는 감성을 이성 또는 오성과 함께 인간의 인식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감성은 수동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한 유한성을 나타내는 반면, 인간과 세계를 잇는 원초적 유대로서 인간생활의 기본영역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이론적 인식에서는 이성적 사고를

위한 감각적 소재를 제공하고, 실천적, 도덕적 생활에서는 이성의 지배와 통솔을 받을 감정적 소지를 마련하며, 미적(美的) 인식에서는 자신의 순수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인간적 생의 상징적 지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감성과 유사한 용어로서 감수성이 있으며 교육학 영역의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과 조화를 기하고 조직 속에서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협동적이고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소집단 훈련인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이 행동변화, 의사소통 향상, 대인관계 증진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Bae, 2004; Lee, 2003).

Kang(2000)은 아동의 감성이란 언제가 기쁘지라든가 화가 났을 때 참지 못하는 조절 능력의 부족과 또한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지 등을 알아서 성인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여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시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여 감성을 인간관계에서의 조화의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철학에서 감성개념을 살펴보면 Kant는 감성을 질료와 형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감성의 질료는 주체가 외부로부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질적인 인상들의 집합인 내용, 또는 감각작용이며, 감성의 형식은 선형적인 형식인 시간과 공간, 즉 주체로 하여금 감각기관에 주어지는 것을 표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이다. 감성은 주체의 수용성을 가리키며 이 수용성을 통해 주체는 외부의 어떤 대상을 표상하게 된다. 또한 감성은 오성이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가능성의 조건으로서 오성에 대해 질료역할을 하며, 경험을 통해 외부세계를 받아들이는 감성과 그렇게 형성된 인식질료에 일정한 틀을 부여하는 오성은 인식의 두 원천이다(철학사전, 1996).

Levinas(1974)는 책임의 윤리에서 "...타자를 위한 존재는 단지 피와 살의 존재들 사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타자적인 것은 주체에 저항하고, 고통을 통해 내면성의 주체에 영향을 준다. 감성(Sensibility), 몸은 자기안에 만족해 있는 향유이자 타자에 대한 보여짐으로써 상처입을 가능성이자 타자를 위한 존재조건이다..." 라고 하였으며 인간에 있어서 의식, 이성, 인식이 추상적이라면 감성은 대상에 직접 부딪히는 직접성, 민감성, 상처받을 수 있음을 그 특징으로 하며 감성의 상태를 가까움 혹은 근접성(Proximity)으로 표현하였다.

미학(Aesthetics)에서 감성 개념을 살펴보면 Baumgarten(1983)은 감성적 인식능력을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추리를 하고 보편적 진리를 인식하는 이성에 의한 능력과 동등한 차원에서 탐구하고 인간의 선천적인 자연적 기질로서의 감성적 인식능력의 총체성을 유사이성(Analogon rationis)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사이성에는 사물들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감성적 능력이며, 외적 감각의 작용에 의한 지각활동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예리한 정신적, 영혼의 변화를 감지해 내는 주의력(Ingenium), 사물들 사이의 차별성을 예민하게 지각하여 내감에 의해 반응하는 능력인 예민성(Acum), 이미 가지고 있는 일련의 표상들을 재인식하는 기억력, 일련의 표상군이 지닌 법칙성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인 예지력과, 대상과의 일치를 표현하는 기호능력, 감정(감응)을 통해 사물들에 대한 조화, 부조화를 예민하게 판별하는 감성적 판단능력, 기억력과 주의력의 도움을 받아 이미지를 상상해내는 시적인 창조적 상상력이 있다(Baumgarten의 연구, Kong, 2002에 인용됨). Schiller(1990)는 인간을 추상적인 두 가지 개념 즉, 머무는 것으로서의 인격(Person)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서의 상태(Zustand)로 설명하였다. 인격은 인간의 이성적, 도덕적 성품의 표현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이며, 자유를 본질로 하고 항상 이성적 본성으로부터 출현한다. 상태는 감성적 성품의 표현으로서 모든 생성의 조건인 시간에 근거하며 인간의 감각적 본성으로부터 출현한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직접적인 삶의 변화와 생동하는 상태를 지향하는 감성 충동과 상태의 온갖 변화속에서도 삶의 원칙들을 제시하는 형식 충동이 있으며, 이러한 힘의 충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하나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이다(Baumgarten의 연구, Kong, 2002에 인용됨).

철학과 미학에서의 감성 의미를 요약하면 Kant는 감성을 인식의 원천으로서 오성의 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설명하고, Levinas는 타자를 위한 존재조건으로서 책임의 윤리로 인식하였다. 또한 Baumgarten은 감성을 관계에 대한 개념적 추리와 보편적 진리를 인식하는 이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Schiller는 감성을 삶의 변화와 생동하는 상태(Zustand)로 설명하여 학자들간에 탐구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에서 감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감수성(Sensibility)이 18세기 초 영국에서 문학용어로 쓰이기 시작할 때는 사랑, 동정심, 연민과 같은 부드러운 감정을 잘 느낄수 있는 성격을 뜻하다가 그 후 아름다운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성격으로 그 의미가 전환된다. 영문학사에서 이른바 '감수성의 시대'로 부르는 이 시기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의지와 이성을 미덕의 유일한 동기로 강조한 17세기 스토아 철학의 도덕률에 대한 반발에서 촉발되었으며 그 결과 도덕적 경험의 중심에는 동정과 타인의 불행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자리하고, 감수성은 자연이건 예술이건, 그 속에서 부드러움으로 표시되는 미와 고상함에 대한 강한 감정적 반응을 뜻하게 되었다(Kim, 2004).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인물의 감성의 깊이를 묘사하기 시작한 이후 감성과 계통의 소설들은 어떤 상황에 대하여 과다한 감정을 보여준다는 근대적 의미의 감상적이 되어 가는 경

향을 나타내었으며 이와 같은 감성 개념의 변천은 감성이 본래 이중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즉, 감성은 고상한 도덕성 대신 히스테리 혹은 내세적인 평정 대신 육체적, 정신적 쇠약을 의미할 수 있었다. 또한 감성은 고상한 감정적 순수성에 깊이 빠지게 한 나머지 기본 세계에서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하게 하며 너무 약하고, 비통제적이고 무질서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지속시키지 못하게 하는 반사회적 경향으로까지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하였다(Kim, 1995).

문예비평에서의 감수성(Sensibility)이란 감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본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적 판단을 가하기 보다 감정적 반응을 빨리 나타내는 것으로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것은 보들레르가 말한 바 ‘사물에 대해서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까지에도 생생하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았으며 이성과 대립된 이러한 견해는 엘리엇에 이르러 감정적 지각과 이성적 사고의 결합인 통합개념으로 이해되었다(Kim, 2004).

문학작품속에서는 기술된 언어의 의미와 비유를 통해서 감성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Hannah More는 ‘Sensibility’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Sweet Sensibility! Thou keen deligh!
Thou hasty moral! Sudden sense of right!
Thou untaught goodness! Virtue's precious seed!
Thou sweet precursor of the gen'rous deed!
Beauty's quick relish! Reason's radiant morn,
Which dawns soft light before Reflection's born.

즉, 위의 시에서는 부드럽고 예민하면서도 미적, 도덕적, 이성적 사유의 직관력을 지닌 Sensibility를 노래하고 있다.

Jane Austin의 소설 ‘Sense and Sensibility’에서는 Elinor와 Marianne이라는 두 여주인공을 통하여 이성과 감성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Elinor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은밀히 묻어두고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Sense의 상징적 인물인 반면, Marianne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가치에 대해 섬세하게 지각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식이 빠르며 그에 대처하는 반응이 부드러우면서도 온정적인,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상처받기 쉬운 Sensibility의 상징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작가는 감정이 풍부하고 마음이 따뜻하며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소중하게 다루는 Marianne을 Sensibility적 인물로 묘사하였으며 또한 인간의 양면적인 성격인 이성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Sense와 감성이라고 하는 Sensibility의 조화를 통하여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술에서 여성적 감수성(Female Sensibility)에 대한 표현을 보면 여성이 남성과 신체적 조건도 다르고 자아인식도 다르기 때문에 남성과는 다른 경험을 갖게 되며, 그러한 경험을 가시화함으로써 여성 특유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즉, 여성이 지닌 힘의 특성은 가시적으로 표출되기 보다는 생명의 잉태와 출산을 몸으로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연과의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 연속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생명력의 강인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움직임은 자연의 모습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Kim, 2005).

이상과 같이 문학에서의 감성은 고상한 도덕성 및 내세적인 평정과 함께 육체적, 정신적 쇠약을 의미하는 이중적 성격을 포함하면서 감정적 지각과 이성적 사고의 분리에서 통합까지 시대에 따라 개념의 사용에 변화가 있었고 문학작품과 미술이라는 예술 영역에서는 부드럽고 섬세하며 조화로운 가운데 내적인 강인함을 가진 여성의 성격에서도 감성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학 영역에서 감성 개념을 살펴보면 Watson(1979)은 ‘The philosophy and science of caring’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 배양을 간호의 중요한 돌봄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균형잡힌 민감성은 타인에 대한 공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감정 인식의 보다 높은 수준을 개발하는 것이 진정한 간호의 출발점이라고 하였다. 자아와 타인에 대한 민감성을 개발하는 방법은 행복한 감정과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며 이러한 감정의 발달은 인본주의와 연민, 인생경험에 의해 고무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정직은 타인을 돌보는데 있어서 민감성을 증진시켜 주며 개인 대 개인으로서 순수한 관계가 형성될 때 건강의 유지와 증진 및 고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한다고 하였다.

Van Manen(1990)은 진단적 사고와 실무, 그리고 정서적 사고와 실무 사이의 차이점을 논하면서 간호의 감성적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다. “촉진의 진단적 손과 대조적으로 드레싱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주사를 놓을 때, 약물을 투여하고 피부를 깨끗이 해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약을 주고 치료 중 통증을 느끼는 것을 도와주는 것들을 할 때의 간호사의 손은 감성적(Pathic)이다. 이것은 외과가가 가져야만 하는 인지적 자신감과 다르다. 그 의학적 손은 몸에서 악성종양 등을 제거해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는 생명을 깊이 손상시킬 수도 있다. 또한 감성적 사고는 그 자체가 개인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다. 감성적 관계는 항상 특별하고 유일하다. 비록 상대적으로 짧은 환자와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만남도 친밀감을 가질 수 있고 내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하였다.

Kong(2002)은 돌봄이 간호사 고유의 대상자에 대한 감성적 체험과 이를 반성하는 이성능력의 조화로서의 미적인 품성과 자질에 대한 개발로부터 성취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예술임을 주장하면서 간호에 있어서 감성적 인식의 표현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즉, 감성적 인식은 개별적인 인격체로서의 도

덕적 자아개념을 전제로 하며 감성적 인식의 과정에 따른 인간의 정서상태는 개념적인 논리적 서술을 통해서도 표현될 수 없으며 예술적인 언어적 표현방법에 의해 서술될 수 있다. 또한 간호대상자와 그의 체험에 대한 감성적인 교류는 인간의 잠재적인 감성적 능력인 예민한 감수성, 은유능력, 상상력(시적능력), 기억력, 미래의 예측능력 등을 통해 감정을 느끼고 행위를 통해 표현하는 능력등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간호학 영역에서의 감성 개념은 자아와 타인의 감성인식 및 수용, 개인과의 직접적인 관계, 친밀감, 도덕적 자아개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감성이라는 용어는 철학과 미학, 문학작품에서는 Sensibility로 사용되고 교육학, 문예비평 및 미술에서는 Sensitivity로 기술되면서 두 가지 용어가 모두 감성, 감수성으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학에서 Watson의 Sensitivity는 민감성으로 번역되었고, Van manen은 Pathic이 넓은 맥락에서 Sensibility와 관련된다고 하여 Sensibility와 Sensitivity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감성(Sensibility)이라는 용어는 인식론적 맥락과 미학적 맥락을 포함하며 자극 또는 자극의 변화에 대하여 감각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으로서 오성과 함께 인식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표상능력, 대상으로부터 촉발되어 표상을 얻게 되는 수동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 유사개념 : 정서(Emotion)

감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서(Emotion)라는 용어가 있으며 정서는 20세기초까지 감정(affect, feeling)과 동일한 것으로 또는 혼용되어 왔다. 감정이란 특정한 사태나 사건에 대한 개별적 정서이며 현재 정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서의 어원은 라틴어의 'emovere'에서 유래하였으며 'e'는 '밖으로', 'movere'는 '움직이다'는 뜻으로서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생각할 때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 또는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주위의 분위기나 기분을 말하기도 하고, 희노애락(喜怒哀樂)과 같이 본능적, 충동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기 쉬운 감정을 말하기도 한다.

정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정서란 개인의 상태를 변형시켜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고, 이는 기쁨과 고통을 수반하며 정서의 예로는 분노, 공포, 동정(Pity)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Solomon, 1993).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지적 평가가 정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 상태나 이후의 인지 또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로서 그는 "무례함에 대해 잘 분노하는 사람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분노하지 않는 것은 미덕이라기 보다 악덕이라고 보고 오직 바보들만이 분노하지 않는다" 라

고 하였다.

심리학자 Plutchik(1965)은 정서는 자신의 느낌에 대한 언어적 보고, 표현적 행동, 사람들간의 반응 형태 등 다양한 증거들에 근거하여 추론해낸 일종의 가설적인 구성개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인간은 수용, 기쁨, 기대, 분노, 혐오, 슬픔, 놀람 등의 기본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기본정서가 혼합되어 다채로운 정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Lazarus(1968)는 일종의 'Response syndrome'을 일으키는 정서의 첫 단계가 바로 인지적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정서는 하나의 복잡한 장애물로서 주관적 정서, 종 특유의 적응적 행동을 위한 활동 양식과 관련된 생리적 변화, 도구적 특성과 표현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충동성의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정서의 행동 충동성은 인지적 평가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Ekman(1992)은 기본 정서를 분노, 공포, 슬픔, 기쁨, 혐오, 놀람으로 구별하였으며 다른 정서의 현상들과 구별되는 특징 또는 준거를 '특징이 있는 보편적 신호, 다른 영장류에서도 출현, 특징적인 생리학, 선행 사건에서의 특징적 보편성, 정서적 반응체계의 응집력, 빠른 시작, 짧은 지속성, 자동적 평가, 원하지 않은 발생' 이라고 하였다.

Goleman(1995)은 'Emotion'을 느낌(Feeling), 느낌의 독특한 사고, 심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상태, 행동 경향으로 정의하였으나 이는 국내의 여러 문헌 및 논문에서 '감성'으로도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정서(Emotion)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따르는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감정 상태이며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행위 충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개념의 속성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 감성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감정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 및 인식능력으로서 감정의 고상함과 쇠약함을 포함하는 이중적인 성격의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문영역별로는 철학과 미학에서는 감성을 인간의 인지과정 및 인식능력으로서 이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보았으며, 문학작품과 예술영역에서는 감정의 인식이 섬세하고 민감하며 이로 인해 상처받기 쉽고 또한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인식능력으로서 감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간호학 문헌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개인대 개인으로서의 직접성 및 대상자에 대한 다정다감한 마음, 자신에 대한 정직성으로서의 도덕적 개념의 인식으로 감성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성을 다음과 같은 속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 감정적으로 느끼는 능력
- 섬세하고 민감한 감정의 인식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다정다감한 마음
- 지적, 도덕적 가치의 인식
- 상처받기 쉬운 예민한 감정
- 개인과의 직접적인 상호관계

여러가지 사례들

● 모델 사례(Model case)

모델사례는 개념의 중요한 속성을 포함하는 순수한 사례이다.

20대 중반의 강양은 사고로 부모를 잃고 깊은 시름에 잠겼다가 얼마 전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된 이중 사촌동생 민양의 침상 옆에 앉아서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녀를 슬픈 마음으로 내려다 보고 있다(감정적으로 느끼는 능력). 강양은 누구와도 일체 말을 하지 않으려는 민양의 절망적인 감정을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이 민양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선블리 말을 시키지 않고, 그녀의 옆에서 가끔 손을 잡아주고 이불 매무새를 고쳐주면서 그녀의 옆을 지켜주었다(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다정다감한 마음). 병원에서는 조만간 정밀검사를 받아보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양은 부모를 여윈 상실한 마음과 자신의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강양은 민양의 치료방향에 대한 결정에 자신이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식사가 끝난 그녀에게 부드러우면서도 뚜렷한 어조로 생명의 존귀함과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동안 모아둔 질병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면서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다(지적, 도덕적 가치의 인식). 이러한 강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양은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가 누워버린다는지, 외면해버린다는지, 혹은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소리치곤 했다. 강양은 자신의 노력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부질없는 것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져들었다(상처받기 쉬운 예민한 감정). 하지만 우연히 울고 있는 민양을 발견하고 강양은 그동안 한번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그녀의 깊은 절망감을 인식하고 공감하게 되었으며(섬세하고 민감한 감정의 인식), 다가가서 안아주면서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있는 생에 대한 비판과 불안, 공포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하였다(개인과의 직접적인 상호관계).

이 사례는 감성의 속성인 감정적으로 느끼는 능력, 섬세하고 민감한 감정의 인식,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다정다감한 마음, 지적, 도덕적 가치의 인식, 상처받기 쉬운 예민한 감정, 개인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델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반대 사례(Contrary case)

반대 사례는 개념의 속성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사례로서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안씨는 최근 들어 생긴 친구 송씨의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부모님의 사고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깊이 상심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더 나아질게 없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며칠 전 혈액 검사에서 백혈병이란 진단을 받은 송씨에게는 하루 빨리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고 필요한 치료 절차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의욕을 잃고 생을 비판하고 있는 송씨에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외부 현실과 타협하여 의리적 충고에 따르기를 권유하는 등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다. 송씨는 친구 안씨의 그러한 권고가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임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정서적 상태를 아무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다는 소외감에 더욱 절망적인 감정만 들 뿐이었다.

이 사례는 감성 속성의 대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 즉, 안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모님의 사망과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송씨의 불행한 처지를 돕기 위하여 그녀에게 현실적인 대처를 하도록 권유했지만 안씨의 그러한 행동은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송씨의 감정상태를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송씨의 절망감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련 사례(Related case)

관련 사례는 연구하고 있는 개념과 관련이 있지만 정의내리려는 속성을 포함하지 않은 개념의 예이다.

이간호사는 내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신규간호사로서 얼마 전에 위암으로 투병하던 어머니를 여의고 슬프고 우울한 기분이지만 근무시간에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몇일 전에는 자신이 속한 팀에 58세의 간암 말기인 환자 김씨가 입원하였고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간호사는 밤 근무 동안 환자의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그녀의 딸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어머니를 간호하던 때를 생각하고는 그 아픈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감정적으로 느끼는 능력), 자신의 인간적인 위로가 보호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리라 믿으면서 곁에 다가가 "힘드시지요. 잠깐 쉬었다가 하세요."하면서 따끈한 차도 권하고, 환자와 딸이 울면서 얘기할 때는 조용히 다가가 살짝 커튼을 쳐주었다(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다정다감한 마음, 섬세하고 민감한 감정의 인식). 밤 새 혼수상태를 헤매던 김씨는 새벽녘에 결국 사망하였고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오열하는 딸의 모습은 차마 바라볼 수가 없을 만큼 의료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이간호사는 사후 간호를 하면서 바로 몇 달 전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의 임종간호를 하던 때를 떠올리고는 터져 나오는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탈의실로 달려가 벽에 기대어 엉엉 울고 말았다.

이 사례는 병으로 어머니를 잃은 이간호사의 슬픈 기분이 비슷한 유형의 환자가 사망함으로써 표출되는 감정을 설명하고 있다. 감정은 감성과 매우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감성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정서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감성의 이해에 중요한 관련사례로 볼 수 있다.

● 경계 사례(Borderline case)

경계 사례는 분석하고 있는 개념의 비판적인 속성의 일부를 포함하지만 전부를 포함하지 않은 속성의 예이다.

최간호사는 5년차의 정형외과 병동 간호사로서 우측 수지가 절단된 젊은 남자 환자를 간호하고 있다. 박씨는 철강산업체에 근무하다가 불의의 산재 사고로 우측 손을 잃게 되어 한 달간을 좌절과 실의에 빠져 의료진과 대화도 하지 않은 채 홀로 고립되어 지내고 있다. 박씨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단지 의료진이 하는 대로 아무 말없이 따라 할 뿐이었으며 밤에는 오래도록 혼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다가 잠이 들곤 하여 의료진들은 그가 재활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그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루는 최간호사가 야간순회 도중에 밤늦도록 자지 않고 왼손으로 글쓰기 연습을 하고 있는 박씨를 발견하고는 그가 내성적인 성격이며 그 만큼 혼자 감당하는 고통도 클 것이라고 느꼈다(감정적으로 느끼는 능력). 최간호사는 그동안 박씨의 고통에 대해 전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하였으며 박씨가 젊은 나이에 중요한 손을 잃게 되어 좌절감과 수치심이 클 것이라 생각하고 글쓰기 연습을 하고 있는 박씨에게 다가가 “오늘은 글씨가 많이 반듯해졌네요.”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다정다감한 마음). 박씨는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용기를 주는 최간호사가 점점 편안하게 느껴져서 그동안 혼자서만 고민하던 외모와 이성관계에 대한 고민을 최간호사에게 털어놓았다. 그러나 최간호사는 자신이 그런 부분을 상담해주다가는 박씨를 동정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고(상처받기 쉬운 예민한 감정), 또한 지금 박씨에게는 외모와 이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재활에 대한 의지가 더욱 우선이라 판단하고 주치의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였다.

이 사례는 감성의 속성 중 감정적으로 느끼는 능력,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다정다감한 마음, 상처받기 쉬운 예민한 감정은 포함되어 있지만, 섬세하고 민감한 감정의 인식, 지적, 도덕적 가치의 인식, 개인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포함되지 않아 경계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최간호사는 박씨의 이성문제

에 대한 고민이 그의 재활과 관련된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박씨와 상의없이 그의 개인적인 감정을 의사에게 노출시켰다.

선행요인 및 결과

● 선행요인(Antecedent)

문헌고찰 결과 감성은 감각적, 정서적, 기질적, 인격적, 대인관계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감성은 인간의 감각적 본성으로부터 출현하며 외부로부터의 신체적, 감각적 자극이 있을 때 발생한다. 둘째, 감성은 분노, 공포, 슬픔, 기쁨, 혐오, 놀람 등의 정서적 체험을 통해서 발생한다. 셋째, 감성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보다 도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기질적으로 정서적인 감각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넷째, 감성은 근접한 대상과의 직접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발생한다.

● 결과(Consequence)

감성으로 인한 결과는 개인적, 대인관계적 측면과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첫째, 감성의 정서적 체험은 이성적, 도덕적, 미적 사고를 위한 소재를 제공하여 개인의 인식능력, 이해력, 기억력, 예측력, 판단력, 창조적 상상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섬세한 감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처받고 감정적 순수성에 깊이 빠질 경우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쇠약을 초래한다. 셋째, 감성의 인식과 교류는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며 특히 간호제공자와 대상자와의 유일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도와준다. 넷째, 감정적 순수성에 깊이 빠져 비통제적이 될 경우 인간관계를 지속시키지 못하게 하는 반사회적 경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험적 증거

1995년 타임(time)지가 Daniel Goleman의 저서 'Emotional Intelligence'를 소개하면서 감성지수(Emotional Quotient)라는 개념이 대중화되었다. Goleman은 IQ 검사나 SAT(Scholastic Attitude Test : 학업적성검사)처럼 표준화된 검사로 인간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고 교육의 준거로 삼는 전통을 비판하고 정서지능 개념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감성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Goleman이 제시한 감성지능의 5가지 요소는 자기인식(Self awareness), 자기조절(Self management), 자기동기화(Self motivation), 감정이입(Empathy), 대인관계기술(Social skill)이다. Goleman(1995)이 제작한 감성지능 검사 도구는 자

가보고식 체크리스트로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성지능 검사 도구로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나 감성지능의 복합성에 비해 문항수가 적어 타당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Salovy와 Mayer(1990)가 제시한 감성지능의 요소는 감정의 평가와 표현, 감정조절, 감정활용의 3가지로 구성되며 각각 하위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감정의 평가와 표현은 자신의 감정인식, 자신의 감정표현, 타인의 감정인식, 타인의 감정이입을 포함한다. 둘째, 감정조절은 자신의 감정조절, 타인의 감정조절을 포함하며 셋째, 감정활용은 융통성 있는 계획세우기, 창의성, 주의집중, 동기화를 포함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를 보면 Park (1997)은 Goleman과 Salovy와 Mayer가 제시한 감성지능의 개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측정요소는 타인 감정인식(5문항), 감정조절과 활용(12문항), 자기감정 인식(5문항), 자기감정 표현(5문항)의 4가지 차원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방법은 Likert 7점 척도로서 최하에 1점, 최상에 7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Cronbach's α = .71 ~ .84였다.

Lee(2004)는 감성지능과 업무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Wong & Law(2002)가 개발한 감성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요소는 자기감정 인식(4문항), 감정활용(4문항), 감정조절(4문항), 타인 감정인식(4문항)의 4가지 차원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성지능의 측정은 Likert 7점 척도로서 최하에 1점, 최상에 7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Cronbach's α = .83 ~ .90이었다.

Lee(2002)는 유아의 감성지능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Bar-On과 Parker(2000)의 Emotional Quotient Inventory를 기초로 Lee, Lee와 Kim(2001)이 개발한 유아용 감성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요소는 정서인지(8문항), 정서수용(9문항), 정서조절(4문항), 정서표현(3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과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대답하는 성향을 확인하는 6개의 P1문항(Positive impression item)으로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은 Likert 4점 척도로서 유아가 활짝 웃는 얼굴부터 찡그린 얼굴까지 4가지의 다른 얼굴 표정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구의 전체 Cronbach's α = .78이며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 .58-.76이었다.

이상의 경험적 준거를 통해서 볼 때, 감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감성(Sensibility)의 유사개념인 정서(Emotion)를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국내에서는 감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구를 구성하는 요소와 문항들이 감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감성과 정서의 개념 구분이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학제간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연구와 적절한 도구개발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감성은 이 세계를 가장 섬세하게 지각하면서도 그러한 섬세한 수용능력으로 인해 지성적인 강인함을 잃지 않는 능력으로서 철학, 심리학, 문학, 교육학, 예술, 마케팅과 상품기획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인문학, 특히 문학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의미가 연구되었고, 최근 들어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쉽과 의사소통 능력 같은 감성능력이 강조됨에 따라 감성 개념을 이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간호학 또한 전통과학의 패러다임보다는 질병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사고 및 총체론적 접근을 포함하는 인간과학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름다움과 예술 및 인본주의적 특성에 대한 개념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돌봄의 고유한 특성은 타자와의 감정을 통한 인간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섬세한 인지능력으로서의 감성 능력은 돌봄의 이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감성과 관련된 연구 및 여러 문헌에서는 감성(Sensibility)과 정서(Emotion)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간호학에서는 감성이 돌봄의 실천에 있어서 간호사의 내적자질로서 중요한 요소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으나 감성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중요한 인식능력인 감성을 간호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개념으로 수용하여 간호과학과 예술의 조화로운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개념분석을 수행하였다.

Walker와 Avant(1988)의 개념분석 틀에 근거하여 감성의 개념을 분석한 결과 감성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능력, 섬세하고 민감한 감정의 인식,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다정다감한 마음, 지적, 도덕적 가치의 인식, 상처받기 쉬운 예민한 감정, 개인과의 직접적인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되었다.

감성의 선행요인은 첫째, 외부로부터의 신체적, 감각적 자극 둘째, 분노, 공포, 슬픔, 기쁨, 혐오, 놀람 등의 정서적 체험 셋째,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보다 도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기질적으로 정서적인 감각을 많이 가진 사람 넷째, 근접한 대상과의 직접적인 상호교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의 결과는 첫째, 개인의 인식능력, 이해력, 기억력, 예측력, 판단력, 창조적 상상력을 향상시키며 둘째, 심리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고 감정적 순수성에 깊이 빠질 경우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쇠약을 초래하고 셋째,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며 특히 간호제공자와 대상자와의 유일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도

와주며 넷째, 감정적 순수성에 깊이 빠져 비통제적이 될 경우 인간관계를 지속시키지 못하게 하는 반사회적 경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상의 개념분석을 통해 확인된 감성은 대상자와의 감정을 통한 상호교호적인 관계형성의 과정속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에 필요한 간호사의 내적 자질에 해당되는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인문학 영역에서 사용되어온 감성 개념에 대한 탐구는 인본주의적 간호철학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간호교육에서는 간호사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품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러한 감성이 간호실무에서 보다 총체적인 간호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통찰력을 자극하여 치료적인 대인관계 과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간호학에서 감성에 대한 도구 개발 및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umgarten, A. G. (1983). *Theoretische Ästhetik. Die Grundlegende Abschnitte ausder "Aesthetica"(1750/1758)*. Hamburg : Philosophische Bibliothek.
- Bar-on, R., & Parker, D. A. (2000). *Bar-on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 youth version technical manual*, N. Y : multi-health system.
- Bae, M. W. (2004). *A study on the effects of sensitivity training on human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skill*,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Doo-San Encyclopedia*. (1999). Seoul : Doosan Dong-a.
- Ekman, P. (1992).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6(3/4), 2169-2200.
- Elizabeth, C., Chantal, D., Pierre, K., & Laurence, H. L. (Ed.). Lee, J. W. (Trans.). (1996). *Dictionary of philosophy*, Seoul, DongNyok.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Kang, E. H. (2000). *A study on the reaction of children's Emotion to artistic form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Kim, J. H. (2005). *A study of organic expression of female Sensi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 ik University, Seoul.
- Kim, J. I. (1995). Personal maturity as the balancing of sense and Sensibility : Elinor and Marianne, *J of the Institute of Humanities*, 55-77, Jeonju University.
- Kim, M. S. (2004). *The Sensibility and everydayness of Kim Seung-Ok's literature*, Seoul : Prunsasang.
- Kong, B. H. (2002). Aesthetical-ethical paradigm of care ethics in nursing, *J Korean Acad Nurs*, 32(3), 364-372.
- Lazarus, R. S. (1968). Emotions and adaptation : Conceptual and emporical relations. In W. J. Arnold(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6, 175-270,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Levinas, E. (1974).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by Alphonso Lingis, Dordrecht : Kluwer Academic Express.
- Lee, Y. S., Lee, J. W., & Kim, M. G. (2001). A study on valida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for korean young children,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school subject-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747-769.
- Lee, G. M.(2002).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 and creativity of young children :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nd explanatory variables*,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Lee, J. H. (2003). *Perspective-tacking, and relationship change through the other's perspective-taking training in group counseling : centered around the sensitivity training group*,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Lee, S. C.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duct : fosed on the reader*,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New Ace English-Korean Dictionary*. (1991). Seoul : Kumsung Publishing Co.
- Norvedt, P. (1998). Sensitive judgement : An inquiry into the foundation of nursing ethics, *Nurs Ethics*, 5(5).
- Plutchik, R. (1965). What is an Emotion? *J of Psychology*, 61, 295-303.
- Park, S. H. (1997). *The development of a tool to measure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Salov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chiller, F. (1990).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nenschen*. Stuttgart : Reclam.
- Solomon, R. C. (1993). *The philosophy of Emotions*, In M. Lewis & J. Haviland(Eds), *The handbook of Emotions*, New York : Guilford.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The Althouse Press, Canada.
- Watson, J. (1979). *Nursing: The philosophy and science of caring*. Boston: Little Brown.
- Walker, L. O., & Avant, K. C. (1988).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Appleton & Lange.
-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1988). Third Colledg Edition, Simon & Schuster, Inc.
- Wong, C., & Law, K, S. (2002). The effect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 an exploratory study,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Analysis of the Concept of Sensibility

Park, Hyun Ju¹⁾ · Choi, Jin²⁾

1) Dongguk University Hospital, 2) Department of Nursing, Sunlin College

Purpose: The concept of sensibility as sensitive perception is a part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human relations and nursing. However, sensibility has not been a focus of nursing research and it seems important to clarify the meaning of sensibilit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sensibility as a cognitive faculty of humans was explored. The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ursing science and art. **Method:** The process described by Walker and Avant to analyze concepts was used to define the concept of sensibility. **Results:** Attributes of sensibility were defined as 'emotional ability to feel', 'delicate, sensitive awareness of emotion' 'appreciative, tender hearted about oneself and others', 'awareness of intellectual, moral values', 'liability to be vulnerable', 'direct interrelation with individual'. **Conclusion:** The sensibility mentioned above included the attribute of caring within nurses intrinsic disposition which is achieved through the process of interrelational communication. Therefore continuous study and development of this concept should not only provide resources for nursing but also have a positive effect in therapeutic personal relationships.

Key words : Sensibility, Emo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Hyun-Ju

Dongguk University Hospital

646-1, Jukdo 2dong, Buk-gu, Pohang, Kyungbuk 791-707, Korea

Tel: +82-17-801-7281 Fax: +82-54-273-0049 E-mail: phj7281@hanmail.net